

▣ 중국 공업정보화부, 태양광 제조업부문 노후 생산설비 폐쇄 및 기술혁신 촉진

-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태양광 제조업계 규범 요건(2024년)’(이하 ‘규범 요건’)과 ‘태양광 제조업계 규범 공고 관리 방법(안)(2024년)’(이하 ‘관리 방법(안)’)을 제정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감.¹⁾
 - ‘규범 요건’은 업계의 기술 발전과 체계적 성장을 위한 지도·관리 정책으로 기존 2021년 정책을 개정한 것임.
 - 이번 ‘규범 요건’은 저품질 설비의 지속 증대를 막기 위해 태양광기업이 무분별한 생산설비 확장보다는 기술 혁신, 품질 제고, 생산 비용 절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음.²⁾
 - 또한, 태양광설비를 신규 건설하거나 확장할 때 필요한 최저자본금 비율을 30%로 규정하여 업계 진입 문턱을 높임. 이를 통해 기술력, 관리능력, 시장경쟁력을 갖춘 우수 기업에 자원이 집중되도록 하여 노후 설비 폐쇄를 촉진함.
 - 기술 지표 부문에서는 태양광 제품의 기술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효율과 경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N형 태양전지, 고효율 모듈과 같은 혁신 제품에 더욱 엄격하고 세분화된 성능 표준을 규정함.
 - 기존 프로젝트의 N형 태양전지의 평균 전환율을 25%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신규 프로젝트의 N형, P형 태양전지와 모듈도 더 높은 효율 표준을 제시함.
 - ‘규범 요건’은 태양광 생산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기와 물 소비량 표준을 규정하고, 태양광 기업들이 태양광업계의 저탄소녹색 관련 표준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태양광제품의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활용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녹색 제조를 강조함.
 - 이번 ‘규범 요건’은 국제 지식재산권 소송이 이어지는 추세에 따라, 주요 사업과 산업화에 적용되는 핵심 특허와 연구개발 및 생산되는 제품은 매년 지식재산권 보호에 활용되는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요건도 상향함.
- 진천증권은 ‘규범 요건’ 제정으로 태양광기업들이 비용 절감, 기술혁신, 제품 세대교체, 운영능력 제고 등을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자문기관인 SMY는 태양광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촉진하려면 엄격한 업계 규범 제정, 업계 진입 문턱 제고, 업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관련 조치들이 태양광 제품의 단계별로 적용되면 업계 발전과 에너지 전환이 빨라질 것이라고 밝힘.

1) 中國經濟網, 2024.7.10.

2) 第壹財經, 2024.7.9.